



自然公園과 野生鳥〈35〉

## 뿔농병아리

- 학명 *Podiceps c. cristatus*
- 영명 Great Crested Grebe

시리도록 파아란 겨울바다는 한적한 정적의 연속이지만 겨울새들이 있어 외롭지가 않다.

떼지어 사는 청둥오리, 고방오리, 비오리 같은 물오리들은 모두 무리를 지어 살지만 같은 물에서 사는 농병아리들은 대다수가 단독생활을 하는 새들이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농병아리류는 검은목농병아리, 귀뿔농병아리, 농병아리, 큰농병아리까지 다섯 종류로 농병아리를 제외하고는 바다를 생활 터전으로 하는 새인데

통상 포구나 하구, 파도가 덜한 항만이나 해안선을 따라 물속을 드나들며 먹이를 찾고 뿔농병아리는 그들 중 대표종이다.

물속으로 잠수하여 물고기나 수서 곤충을 주식으로 살아가고, 외롭게 바다에서 살기 때문에 시선을 끌지는 못하지만 그들만의 생태는 경이롭기만 하다.

평생을 물에서만 떠다니며 사는 이 새는 번식도 물에 뜨는 부평초식 등지를 만들어 산란과 포란을 하며 부화된 어린새는 바쁘게 물로 데리고 나와 수상생활을 익히게 한다.

분류학상으로는 고대형에 속하며 펭귄같이 엉덩이에 다리가 붙어있고 뺨뺨하게 밀생한 깃털은 일반적인 조류와는 판이하다.

지구상에는 19종의 농병아리만 존재하는데 대다수종들이 오대양을 따라 폭넓게 분포하여 국지적으로 살지는 않는다.

원래 뿔농병아리는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새 였었다.

11월 하순 시베리아에서 한반도로 월동을 위해 남하하는 물오리떼를 따라 도래하여 도처의 해안에서 겨울을 지낸 후 봄철이 되면 번식지인

시베리아로 떠나던 겨울철새였었다.

그러던 뿔농병아리도 최근들어 천수만을 비롯하여 국내에서도 번식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제는 텃새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태계 변화는 어떻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낙오된 개체들이 만나 번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수십년을 가까이 한 우리땅의 생태계에서 몇 종류는 이미 이런 변화로 정착하기도 하였고 진행 중인 종도 몇몇이 있다.

해수면을 떠 다니며 잔잔하게 살아가는 뿔농병아리는 사람이 싫어 물속으로 피할 형편이 않되면 엉성한 긴 날개로 흡사 다친새 마냥 불안스런 저공 비행을 하지만 겨울바다에서 이들을 관찰할 때에는 항상 평온함을 느낀다.▲▲



클·사진 李正雨  
(삼육대교수·동서조류연구소장)